

- 사람people
- 신고
- 기본인쇄
- 스크랩
- Facebook
- Twitter
- 목록으로 가기
-

[사람]

포스텍 한세광 교수 벤처기업 70억 원 규모 투자유치 화제

벤처회사 화이바이오메드 '당뇨 광 진단' 스마트렌즈
2018.06.10



포스텍 교수가 만든 벤처회사가 [콘택트렌즈](#) 회사로부터 70억 원의 [투자](#)를 유치해 화제다.

10일 포스텍에 따르면 [신소재](#)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[창업](#)한 벤처회사 '화이바이오메드'가 최근 국내 최대 규모 콘택트렌즈 회사인 '인터로조'로부터 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.

화이바이오메드는 지난 2014년 한 교수가 원진 [성형외과](#)와 공동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용 [의료기기](#)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.

서울에 본사가 있고 포스텍과 서울성모병원에 [연구소](#)를 두고 있다.

인터로조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는 한 교수가 개발한 [스마트 콘택트렌즈](#)를 이용한 [당뇨 진단 시스템](#) 기술이 있다.

각막과 [눈꺼풀](#) 안쪽에 있는 [혈관](#)에서 착안한 이 기술은 혈관 속 당 농도를 [근적외선](#) 빛으로 분석, 진단을 내리는 당뇨 광 진단기술이다.

이 기술이 적용된 렌즈는 [당뇨 환자](#)의 눈물에 포함된 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, [혈당 수치](#)가 올라가면 렌즈 표면의 [코팅](#)이 자동으로 녹아내리면서 약물도 나온다.

2015년 [인터넷](#) 기업 구글이 개발했던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혈당 수치 감지만 가능했던 것과 달리 즉각적인 처방까지 가능하다.

포스텍 한세광 교수는 “오는 9월까지 인터로조가 화이바이오메드에 지분 10%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60억 원을 과제 연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
인터로조 관계자는 “스마트 콘택트렌즈 관련 원천 [특허기술](#)을 이전, 사업화하기 위해 화이바이오메드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규모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”며 “스마트 콘택트렌즈가 [당뇨병](#) 및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 및 치료하는 [플랫폼](#)으로써 상업적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말했다.

[프리미엄](#) 놀라운 양파즙의 효능 함유원

김웅희 기자

woong@idaegu.com

<저작권© 대구·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.>



김웅희 기자

- 삼성, 투타 완벽 조화...리그 첫 2만3천 스포츠 2018.06.10
- 대구FC, 브라질 출신 조세 영입 강한 스포츠 2018.06.10
- 경주 동국대 사격부, 전국대회 신기록 명 스포츠 2018.06.10
- 세계 테니스인 경산서 불꽃튀는 승부 스포츠 2018.06.10
- 대구 미세먼지 농도, 프랑스 파리의 2배 사회 2018.06.10